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김 혜 원 · 이 해 경

호서대 청소년지도학과 한양대 교육학과

이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별에 따른 성의식과 성실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양성평등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인문계, 실업계 남녀 고등학생 20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 성고민, 성지식, 성행동 현황을 조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받고 싶어하는 성교육 내용, 성고민, 성지식, 성태도에서 남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행동에 있어서 성교의 경험 정도와 성교의 계기,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 등에서 뚜렷한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 남녀에 따라 성교육 내용과 강조점이 서로 달라야 할 것이 시사되었다. 논의에서는 남녀간 성의식과 실태에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십대 임신과 출산, 원조교제, 매매춘과 같은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는 가정의 해체, 학교교육의 획일화, 사회교육의 부재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성의식이 점차 성을 상품화시키고 성윤리가 무너지는 현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데 근본

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요즘의 청소년들이 확고하고 올바른 성의식이나 성도덕을 확립하지 못한 채 손쉽게 성을 묘사한 매체를 접하고 성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혼란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즉, 청소년들의 육체적 성은 저만큼 앞서 가는데 반해 그들의 정신적 성윤리의 발달은 아동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의 성행동 현황을 파악한 실태조사는 많았다. 또한, 많은 사회단체나 기관들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성교육 지침서 또한 다양하게 제작되어 왔다. 그러나 성교육을 실시하고 그 지침서를 만드는데 있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관련 고민거리와 그들의 성행동 경험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실정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고민 및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특히 남녀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성교육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관한 요구

우리 사회가 남성보다는 여성의 순결, 성태도, 성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표하고 더 많은 제약을 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하면서 이제까지의 청소년 성교육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실시되어 온 듯하다.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극히 드물지만 최근의 한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제기하는 성교육 부실과 부재에 대한 불만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916명의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박현이(2000)의 연구에서 전체의 94.4%의 학생들은 이제까지 학교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성교육의 허구 또는 부실이 심각한 듯하다. 성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지식이나 성갈등, 성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성지식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더 많은 성지식을 갖고 있음) 성갈등이나 성태도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이, 2000).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성갈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 받지 못하고, 자신의 성태도 또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들은 의외로 많지 않지만, 기존의 몇몇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교육받고 싶어하는 몇 개의 영역을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은 크게 성지식과 남녀간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구체적인 성지식 중에서는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적 관련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최동규, 1990; 김영희, 1992; 이문희, 1992). 다음으로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성교제나 성관계에 관한 것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고애자, 1990; 김종의, 1991).

흥미롭게도 성교육을 받고 싶은 내용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은경, 1992; 강영삼 등, 1997; 박현이, 2000). 최근 강영삼 등(1997)의 조사에서 볼 때, 1170명의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 중 남학생들은 이성교제(48.0%), 성충동 유발요인 및 해소방법(37.2%), 성에 관한 지식(37.0%)의 순으로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성교제(41.0%), 성에 대한 가치관(35.5%), 성에 대한 지식(34.9%)을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박현이(2000)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성교육 내용이 피임법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충동 조절 및 성관계 자체, 성병예방, 성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들의 성고민,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현황

1) 성고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갖고 있는 호기심과 고민의 정도는 이들이 상담기관들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가의 분석(이명화, 1999)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최대의 청소년종합상담실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경우 전화상담에서 성(이성문제포함)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16.1%로 다른 상담내용에 비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의 시도 청소년상담실의 경우도 상담통계에서 '성상담'을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 성상담이 차지하는 비

율은 전체의 16% - 95%까지로 대부분 상위순위를 점유하고 있다(전화상담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 16.1%, 경기도 청소년종합상담실 45.1%, YMCA 70.2%, 가족보건 복지협회 90.3%,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94.7%).

청소년들의 상담실 이용을 상담내용에 따라 분류한 1998년 YMCA성교육상담실의 통계에 의하면, 남자 고등학생들은 '자위행위'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지식', 3위로 '성심리와 성욕구'의 이유를 갖고 있었다.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1위는 '임신·낙태·피임', 2위는 '이성문제,' 3위는 '성관계'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성상담을 요청해 오는 내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서로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명화, 1999).

이와 함께 최근의 한 연구에서도 남자 고등학생들이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갈등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박현이, 2000). 그 결과, 전체 916명의 응답자 중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호기심이 많은 것 같다(69.4%)' '성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46.2%)'와 같이 자신의 강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3분의 1가량의 응답자(33.7%)들은 '불현듯 일어나는 성충동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응답해 갑작스러운 성충동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소 이용에 따른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남학생들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강한 성충동으로 인해 가장 고민하고 있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행위로써 자위행위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성지식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지식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은 대체로 성의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신체구조, 정자와 난자의 움직임, 남성의 몽정이나 사정, 여성의 월경이나 배란 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희 1993; 이문희, 1993; 이명화, 1998).

성지식의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은 월경, 사정, 임신과정, 아기탄생, 에이즈,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정은경, 1992). 또 다른 연구에서도 피임의 뜻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3).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결과도 있어 이명화(1998)의 연구에서는 성지식 중 이차성징, 임신과 피임, 성병, 에이즈, 성폭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적으로 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남녀 청소년들은 성지식 중 각각 다른 영역에 대해 더 많거나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들마다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윤곽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성지식을 얻게 될까? 많은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얻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친구라는 것이 밝혀져 왔다(이계화, 1988; 고애자, 1990; 정은경, 1992; 박은주, 1993). 그러나 흥미롭게도 남녀 학생들이 성지식을 얻는 경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성지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출처는 비디오(41.7%)이고, 다음으로 잡지, 친구, 영화, TV, 교사, 부모, 기타의 순이었다. 반면, 여학생은 교사(33.5%)로부터 가장 많은 성지식을 얻고, 다음으로 친구, 잡지, TV, 비디오, 부모, 영화, 기타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3). 최근의 연구에서도 남자고등학생들은 성을 배우는 경로로 친구들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45.8%) 다음으로 인터넷 PC통신에 의존(18.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이, 2000). 이를 종합해 볼 때 남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지식보다는 학교 밖의 산발적이고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학교 성교육과 같은 공식적인 경로에 의존하고 있는 대조를 보인다.

3) 성태도

성지식과 마찬가지로 성에 관한 태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이명화(1998)

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성개념의 광의성(성기중심의 성교 + 확대된 성개념), 성인식의 긍정성(성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런 정도), 성평등성(성에 대해 남녀 동등성 정도), 성허용성(성행동에 대해 윤리, 도덕적 기준보다 관대한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에 대한 태도에서 더 긍정적이고, 평등적인 태도를 갖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정은(1998)의 연구에서도 충동성에 대해서는 성별차이가 없으나 허용적 태도에서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의 구체적인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혼전순결에 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들에 따르면 55~71%의 청소년들이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미숙, 1987; 김영희, 1993; 이문희, 1993; 최동규, 1990). 반면, 사랑하는 사이면 혼전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가 전체적으로 24~40%에 이르고 있었다(최동규, 1990; 김영희, 1993; 박은주, 1993).

성태도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준 최근의 연구로는 '2000 MBC 청소년 백서'를 들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사랑과 성에 관한 인식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윤곽을 보이지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성관계는 사랑과 별개로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성관계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관계는 중고교 시절에도 가능하다'들에 더욱 동의하고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해야 한다,' '성관계는 동물적이고 질이 낮다,' '성관계는 중고교 시절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가 많아 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성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성행동

성행동에는 손잡기, 팔짱끼기, 키스, 애무, 성교, 자

위행위 등 다양한 행동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성교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성간에 이루어는 다양한 성행동 중 성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표하는 행동이고, 성교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결과(예를 들어, 십대 임신)는 다른 행위의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교를 다루기 위해 이와 관련된 요인인 임신과 피임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1) 성교

과연 어느 정도의 청소년들이 성교의 경험을 갖고 있을까? 혹은 현재 지속적인 성교의 경험을 하는 것일까? 우선, 서울시내 383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김영희, 1993) 여학생들에(5.7%) 비해 약 4배 많은 비율의 남학생들이(24.0%) 성교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0 MBC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성교의 경험여부는 '있다' 5.3%, '없다' 94.7%로 10년 전의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역시 남학생의 경험이 여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8.4%, 여학생 2.1%). 그러나 최근 남자 고등학생 916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학생들의 성교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9%).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결과와 달리 이 연구가 중학생이 제외된 고등학생만을 대상(절반가량은 실업계)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이명화(1998)의 연구에서도 남학생 중 14.8%, 여학생의 경우 6.4%가 성교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은 주로 고등학생 남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58.3%, '자신이 원해서'가 16.0%로 나타나 순간적인 분위기가 성교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강영삼 등, 1997). 박현이(2000)의 연구에서도 절반이상의 남학생들은(총 59.1%) 사랑보다는 호기심과 성충동, 분위기, 술이나 약물 등 일시적인 자극에 의해 첫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고하였다.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경우는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43.3%인 반면 '상대방이 원해서'라는 수동적인 이유도 3분의 1가량(31.1%)을 차지하였다(강영삼 등, 1997).

또 다른 연구에서도 성과와 관련된 여학생들의 수동성이 두드러져,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응답은 남학생(6.8%)에 비해 여학생(23.5%)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3).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성행동에 있어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부분이 성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임신과 피임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늘어나면서 10대 임신도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유엔의 평가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여성출산이 1980년에 93,600만 이었던 것이 2000년까지는 114,700만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성문화연구소, 1997).

최근 이루어진 몇 개의 국내 연구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도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 대학가족계획협회가 주관한 '인공유산과 여성건강' 세미나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 낙태시술을 한 미혼여성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6.7%였다.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의 경우 1998년 입소자 중 10대의 비율이 55%정도이고, 과거에는 18~19세가 가장 많았으나 이제는 15~16세가 가장 많아 미혼모의 평균연령대가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들도 97년에 비해 98년에는 20%정도 늘어났고 이중 20세 이하가 61%에 해당한다고 한다(박현이, 2000).

임신은 하나의 성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결과이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임신을 하는 당사자인 여자청소년들에게 많은 초점을 맞춰 왔다. 즉, 미혼모가 아닌 미혼부에 대한 관심이나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상대에게 임신을 시킨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남자 고등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박현이, 2000)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 중 15.1%는 '상대가 임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4.0%의 학생들은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고 '없다'고 대답한 다수의 학생들

도 자유응답에서 '자신과 헤어질 때까지는 임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이 상대의 임신여부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속에서 이들의 대부분은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고 있고(72.1%), 피임하지 않는 이유로 '귀찮아서(32.2%)'나 '(피임도구들) 사는 게 부끄러워서(17.1%)'라고 응답하였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남녀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족계획협회(1991)의 조사에 의하면, 혼전임신의 해결 방법으로 낙태를 지지한 비율은 여학생의 55.6%, 남학생의 48.4%에 해당되어 여학생들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더 강하게 낙태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실질적인 조사(박현이, 2000)에서는 상대의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다수가(78.4%) 상대방이 낙태를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상대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 '낙태비용을 부담(30.0%)'했거나 '책임감을 느꼈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25.0%)'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무방비적인 자세를 많이 나타냈다. 더 나아가 '임신사실이 나와서 무관하다고 생각한다(15.0%)'거나 '그 여자와 연락하기가 꺼려졌다(5.0%)'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도 다수에게서 보고되었다.

방 법

1. 연구방법 및 대상

2000년 7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전국의 인문계, 실업계,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의 행정구역별로 무선표집된 학교들에 우편으로 배달되었고, 설문의 실시는 학급별로 수업시간에 실시되었다. 회수된 2136부의 설문지 중(회수율 89%) 불충분한 반응을 제외한 2049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성별(남자 1005명, 여자 1043명), 학년별(1학년 678명, 2학년 705명, 3학년 665명), 인문실업계별(인문계 1017명, 실업계 1023명), 거주지별(서울 442명, 직할광역시 251명, 중소도시 1071,

기타 239명)별로 표집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6.84세였다.

2. 측정변인

측정된 변인들은 사회·경제적 배경특성(학교, 학년, 가족형태 등)들과 성행동 및 성태도에 관한 문항들이었다. 성행동과 성태도에 관한 것은 성교육, 성고민,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1) 성교육

성교육은 과거의 받아들인 성교육과 앞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성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성교육의 내용은 12개의 항목들(① 사춘기의 신체, 심리적 변화, ② 성적공상이나 성충동, ③ 자위행위, ④ 성기위생이나 성건강, ⑤ 이성교제, ⑥ 이성간의 키스나 애무, ⑦ 이성간의 성교, ⑧ 임신이나 피임, ⑨ 비정상적인 성행동, ⑩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⑪ 성(남성 혹은 여성)역할, ⑫ 기타)에 대하여 과거 교육 받았던 바와 앞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바를 모두 선택(중복 응답)하게 하였다.

2) 성고민

성고민은 현재 자신이 갖는 성고민의 순위를 7개의 영역들(① 성적성숙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 ② 성적 공상이나 충동, ③ 자위행위, ④ 이성과의 성행위나 성교, ⑤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 ⑥ 임신이나 피임, 낙태, ⑦ 기타)에 대해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를 매기게 하였다.

3) 성지식

성지식은 성과 관련된 10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이들 문항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의 진위를 판단하게 하였다. 응답에서 정답의 총점 평균인 전체 성지식의 정도와, 10개의 개별 문항들에 대해 각각 남녀 차이를 분석하였다.

4) 성태도

성태도는 남녀에 대한 성평등 의식과 개방성 정도

를 측정하였다. 성평등은 4문항과 성개방성은 3문항을 각각 5점 척도상(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에서 측정하였다. 성평등에 관련된 문항은 '원치 않은 임신은 했을 경우 여자가 책임져야 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거칠게 대하는 것이 성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여성이 애무를 허락한 경우 남성이 성폭행을 하더라도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결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이었다. 개방성 문항은 '사랑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기에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였다.

5) 성행동

성행동은 성교, 임신, 피임의 문제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성교의 경우에는 이성간의 성교 경험 유무, 처음 성교를 하게 된 계기, 성교의 대상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임신은 임신경험과 횟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피임은 피임의 경험 유무와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성별을 중심으로 각 변인들을 비교분석하였고,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결 과

1. 남녀별 성교육 요구의 차이

1) 과거 받아들인 성교육

과거 남녀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아들인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의 전체 결과에서 볼 때 남녀 모두 사춘기의 신체, 심리적인 변화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교육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임신과 피임, 이성교제, 성태도 및 가치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성적 공

표 1. 과거 받은 성교육 내용 빈도(%) : 복수응답

	신체/심리변화	성적공상/성적충동	자위행위	성기위생/성건강	이성교제	이성간 키스/애무	이성간 성교	임신과 피임	비정상성행동	성태도/가치관	성역할	기타
남자	747 (40.4)	238 (12.8)	325 (17.8)	280 (15.7)	393 (21.3)	127 (6.9)	232 (12.6)	486 (26.3)	163 (8.8)	373 (20.2)	268 (14.5)	31 (1.7)
여자	850 (48.0)	217 (11.7)	228 (12.2)	232 (12.6)	431 (23.3)	106 (5.7)	186 (10.1)	613 (33.2)	122 (6.6)	412 (22.3)	264 (14.3)	18 (1.0)
전체	1587 (86.5)	453 (24.5)	551 (29.8)	522 (28.3)	824 (44.6)	233 (12.6)	418 (22.6)	1099 (59.5)	285 (15.4)	785 (42.5)	532 (28.8)	49 (2.7)

표 2.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 빈도(%)

	신체/심리적 변화	성적공상/성적충동	자위행위	성기위생/성건강	이성교제	이성간 키스/애무	이성간 성교	임신과 피임	비정상성행동	성태도/가치관	성역할	기타
남자	240 (12.9)	276 (14.9)	288 (15.5)	349 (18.8)	368 (21.5)	353 (18.0)	388 (20.9)	352 (19.0)	242 (13.0)	313 (16.9)	252 (12.6)	52 (2.9)
여자	184 (9.9)	187 (10.1)	184 (8.8)	301 (16.2)	364 (18.6)	265 (14.3)	298 (16.0)	512 (27.6)	195 (10.5)	357 (19.2)	210 (11.3)	44 (2.4)
전체	424 (22.8)	463 (24.8)	472 (25.4)	650 (35.0)	763 (41.1)	618 (33.3)	686 (36.9)	864 (46.5)	437 (23.5)	670 (36.1)	463 (24.9)	97 (5.2)

상 및 성적충동, 자위행위, 성기위생 및 성건강, 이성간 키스나 애무, 이성간 성교, 비정상적인 성행동, 성역할 등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희망하는 성교육

앞으로 희망하는 혹은 받고 싶은 성교육 내용에 대한 빈도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전체 결과에서 보면 남녀 모두 임신과 피임에 대해 가장 많이 교육받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성교제, 이성간 성교, 성태도 및 가치관, 성기위생 및 성건강, 이성간 키스나 애무가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반면, 사춘기의 신체 및 심리변화, 성적공상이나 성충동, 비정상적 성행동, 성역할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남녀간 차이를 볼 때, 남학생들은 가장 많이 교육받고 싶은 내용으로 이성교제와 성교를 꼽았고 다음으로 성기위생이나 성건강, 키스나 애무 혹은 임신이

나 피임, 성태도나 가치관 등의 순서를 보였다. 반면, 남학생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여학생들은 가장 받고 싶은 성교육 내용으로 임신과 피임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이성교제, 성태도나 가치관, 성기위생이나 성건강, 성교 등의 순서를 보였다.

2. 남녀별 성고민의 차이

청소년들의 성고민을 1위에서 10까지 순위를 매기게 하였을 때, 1순위로 나타난 결과를 성별에 따라 빈도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전체에서 1위는 성적성숙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에 대한 고민이었다. 다음으로는 성적공상이나 충동, 이성과의 성행위나 성교,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 임신이나 피임 및 낙태, 자위행위의 순서를 보였다.

성고민의 순위에서 남녀간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성적 성숙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에 대해 가장 많

표 3. 성별에 따른 성고민 1위 빈도(%)

	성적/신체적 변화	성적공상 /충동	자위 행위	이성간 성행위/성교	성건강	임신/피임 /낙태	기타	Total	χ^2	sig
남 자	276(33.3)	185(22.3)	59(7.1)	132(15.9)	103(12.4)	46(5.5)	28(3.4)	829(100)	118.78	.000
여 자	351(52.2)	69(10.3)	8(1.2)	72(10.7)	68(10.1)	78(11.6)	26(3.9)	672(100)		
전 체	627(41.8)	254(16.9)	67(4.5)	204(13.6)	171(11.4)	124(8.3)	54(3.6)	1501(100)		

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성적공상이나 충동, 이성과의 성행위나 성교,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 자위행위, 임신, 피임 및 낙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적 성숙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다음으로 임신이나 피임 및 낙태,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 이성과의 성행위나 성교, 성적 공상이나 충동, 자위행위의 순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녀별 성지식의 차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체 성지식을 볼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바른 성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성지식 문항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남녀 모두를 볼 때 가장 오답이 많은 문항은 '정자의 생존시기(문항4)'에 관한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생리 중 임신 여부(문항1)', '남자의 성기 크기(문항9)', '강간(문항8)', '발기(문항5)'에 대해서였다. 특

표 4. 성별에 따른 전체 성지식 평균(SD)

	성지식 총점	F	sig
남 자	6.335(1.699)	2.325	.000
여 자	6.663(1.587)		
전 체	6.502 (1.651)		

히 문항4(정자는 자궁 안에서 48시간 살 수 있다)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학생들이 (71.9%) 오답을 하였고, 문항 1(생리중에도 임신이 가능하다)의 경우(61.0%)와 문항 9(남자의 성기의 크기는 여자의 성적 쾌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의 경우에도(44.4%) 각각 절반정도의 학생들이 오답을 말해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남녀별 차이를 보면 AIDS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의 문항 모두에서 성지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문항 1, 2, 5('생리 중 임신 여부', '자위행위', '발기')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문항 3, 4, 6, 7, 8, 9('초경 및 몸정과 임신과의 관계', '정자의 생존시기', '성폭력', '피임법', '강간', '남자의 성기 크기')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4. 남녀별 성태도의 차이

성태도에 대해서는 성평등성과 성개방성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평균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성평등성의 정도를 볼 때,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더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개방성의 정도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개방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남녀별 성행동의 차이

1) 성교

성교에 대해서는 '성교의 경험유무'(표 7), '처음하

표 5. 성별에 따른 개별 성지식에 대한 오답 반응수(%)

번호	문항내용	성별	오답	Total	χ^2	sig
1	생리중에도 임신은 가능하다.(O)	남자	563(56.8)	992(100)	14.946	.000
		여자	676(65.1)	1038(100)		
		전체	1239(61.0)	2030(100)		
2	자위행위는 지나치게 하지 않는한 건강에 해롭지 않다.(O)	남자	249(25.0)	996(100)	10.226	.001
		여자	324(31.4)	1032(100)		
		전체	573(28.3)	2028(100)		
3	초경과 몽정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임신은 가능하게 된다.(O)	남자	154(15.5)	992(100)	5.639	.018
		여자	122(11.9)	1026(100)		
		전체	276(13.7)	2018(100)		
4	정자는 자궁내에서 48시간 살 수 있다.(X)	남자	744(74.8)	995(100)	7.947	.005
		여자	703(69.1)	1017(100)		
		전체	1447(71.9)	2012(100)		
5	보통 남자들은 사춘기 이전에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X)	남자	220(22.0)	998(100)	133.263	.000
		여자	471(46.5)	1013(100)		
		전체	691(34.4)	2011(100)		
6	성폭력은 아한 옷을 입거나 예쁜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X)	남자	212(21.2)	998(100)	91.457	.000
		여자	68(6.6)	1031(100)		
		전체	280(13.8)	2029(100)		
7	성교 후에 질을 씻어내는 방법은 효과적인 피임법이다.(X)	남자	317(32.0)	991(100)	25.569	.000
		여자	224(22.0)	1019(100)		
		전체	541(26.9)	2010(100)		
8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강간을 거부하면서도 성적쾌감을 느낀다.(X)	남자	470(47.4)	992(100)	107.864	.000
		여자	257(25.1)	1022(100)		
		전체	727(36.1)	2014(100)		
9	남자의 성기 크기는 여자의 성적쾌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X)	남자	561(56.6)	992(100)	117.451	.000
		여자	330(32.5)	1015(100)		
		전체	891(44.4)	2007(100)		
10	AIDS는 동성연애자들에게만 걸리는 병이다.(X)	남자	127(12.8)	993(100)	.045	.832
		여자	128(12.5)	1026(100)		
		전체	255(12.6)	2019(100)		

표 6. 성별에 따른 성태도의 평균(SD)

	성평등성	성개방성
남 자	3.6703 (.630)	2.9859 (1.167)
여 자	3.8469 (.584)	2.1258 (1.094)
전 체	3.7604 (.614)	2.5468 (1.209)
F값, p유의도	42.973, .000	94.254, .000

표 7.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 유무'에 대한 빈도(%)

	없다	있다	전체	χ^2	sig
남자	835(86.5)	130(13.5)	965(100)	14.635	.000
여자	907(91.9)	80(8.1)	987(100)		
전체	1742(89.2)	210(10.8)	1952(100)		

표 8. 성별에 따른 '처음 성관계 계기'에 대한 빈도(%)

	주변친구들이 다 하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호기심 때문에	상대가 원해서	성충동 때문에	사랑 하므로	기타	전체	χ^2	sig
남자	2(1.6)	16(12.8)	18(14.4)	23(18.4)	14(11.2)	37(29.6)	13(10.4)	2(1.6)	125(100)	40.440	.000
여자	1(1.3)	11(14.1)	16(20.5)	3(3.8)	21(26.9)	3(3.8)	18(23.1)	5(6.4)	78(100)		
전체	3(1.5)	27(13.3)	34(16.7)	26(12.8)	35(17.2)	40(19.7)	31(15.3)	7(3.4)	203(100)		

게 된 계기'(표 8), '처음 성교를 한 상대'(표 9)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듯이 남녀 전체 고등학생들의 약 10% 정도가 성교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를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된 계기'(표 8)를 보면, 남녀

모두 1위는 성충동 때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대가 원해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사랑하므로 순으로 나타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호기심 때문의 경우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남녀의 차이를 볼 때, 남자의 경우는 성충동이나, 호기심에서 성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여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다음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와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첫 성관계의 원인이었다. 반면에 여학생들은 상대가 원해

표 9. 성별에 따른 '처음 성관계를 나눈 상대 유형'에 대한 빈도(%)

	모르는 사람	이성교제상대	친인척/이웃	매매춘	기타	전체	χ^2	sig
남자	26(20.8)	88(70.4)	3(2.4)	1(0.8)	7(5.6)	125(100)	10.140	.071
여자	7(9.0)	63(80.8)	1(1.3)	4(5.1)	3(3.8)	78(100)		
전체	33(16.3)	151(74.4)	4(2.0)	5(2.5)	10(4.9)	203(100)		

서나 사랑하므로의 이유가 성관계를 맺은 대표적인 이유였고,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나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음으로 성관계를 나눈 상대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성관계의 상대는 남녀 모두 '이성교제의 상대'가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이 다음으로 많았다. 남녀간의 빈도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들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나 친인척 및 이웃과의 관계가 여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다. 반면 여학생들은 이성교제 상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남학생과 달리 매매춘의 경우도 남학생에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임신

임신에 대해서는 자신 혹은 자신으로 인한 상대의 임신경험 유무(표 10)와 임신의 횟수(표 11)를 성별에 따라 빈도 분석하였다.

표 10에 따르면 자신 또는 상대의 임신 경험은 남

표 10. 성별에 따른 '자신 혹은 자신으로 인해 상대가 임신한 경험'의 빈도(%)

	없다	있다	전체	χ^2	sig
남자	858(97.4)	19(2.2)	877(100)	54.166	.000
여자	801(89.2)	97(10.8)	898(100)		
전체	1659(93.5)	116(6.5)	1775(100)		

표 11. 성별에 따른 '지금까지 임신 혹은 임신시킨 횟수'에 대한 빈도(%)

	1번	2번	3번	4번 이상	전체	χ^2	sig
남자	8 (44.4)	3 (16.7)	2 (11.2)	5 (27.8)	18 (100)	1.353	.717
여자	41 (45.1)	25 (27.5)	7 (7.7)	18 (19.8)	91 (100)		
전체	49 (45.0)	28 (25.7)	9 (8.3)	23 (21.1)	109 (100)		

학생의 경우 19명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97명이어서, 여학생들 자신이 임신한 경험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신의 횟수(표 11)는 남녀 응답 학생 109명 중 '1번 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번 이상', '4번 이상', '3번 이상'의 순서를 보였다. 횟수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3) 피임

피임에 대해서는 '피임의 경험유무'(표 12)와 '하지 않는 이유'(표 13)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12. 성별에 따른 '피임경험 유무'의 빈도(%)

	없다	있다	전체	χ^2	sig
남자	614(82.2)	133(17.8)	747(100)	4.228	.040
여자	489(86.4)	77(13.6)	566(100)		
전체	1103(84.0)	210(16.0)	1313(100)		

표 13. 성별에 따른 '피임을 안하는 이유'의 빈도(%)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서	사용법 몰라서	사러가는 것이 부끄 러워서	귀찮아서	준비를 못해서	상대가 원치 않아서	기타	Total	χ^2	sig
남자	5(7.1)	4(5.7)	21(30.0)	15(21.4)	7(10.0)	7(10.0)	3(4.3)	70(100)	4.332	.630
여자	4(13.8)	0(0.0)	12(41.4)	6(20.7)	4(13.8)	2(6.9)	1(3.4)	29(100)		
Total	9(9.1)	4(4.0)	33(33.3)	21(21.2)	19(19.2)	9(9.1)	4(4.0)	99(100)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관계시 피임을 하는가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다수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여도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남녀학생 모두 사러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찮아서, 준비를 못해서, 상대방이 원치 않아서나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서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이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교육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보면 다음과 같은 크게 4가지의 점에 대한 방향제시가 가능하다.

첫째, 앞으로의 성교육 내용은 청소년들의 요구와 일치해야 하며, 특히 성별에 따른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먼저, 청소년들이 이제까지(과거) 학교에서 받아들인 성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교육 받아왔고, 다음으로 임신과 피임, 이성교제, 성태도 및 성가치관의 순서로 교육받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들이 현재 받고 싶어하는 성교육 내용과 비교해보면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다.

대상자들은 기존에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내용인 사춘기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낮은 반면, 이들이 이제까지 비교적 많이 교육받아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나 이성간의 성행위(키스, 애무, 성교), 임신과 피임, 그리고 성태도 및 가치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요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생들이고 이들이 사춘기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민감한 시기를 지났다는 사실을 현재의 성교육에서는 크게 감안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사춘기의 신체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한 내용은 축소하는 반면, 이들이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이제까지 받아들인 성교육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남녀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춘기의 신체, 심리적 변화에 관해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아왔다고 응답하여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사춘기의 변화에 치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은 다양한 측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요구하는 성교육의 내용이나 현재 갖고 있는 성고민의 내용, 갖고 있는 성지식 내용, 성태도, 성교를 하는 비율이나 하는 이유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남녀차이를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 중 성고민의 내용과 받고 싶은 성교육 내용에 대한 남녀 차이의 파악은 성교육의 구성요소와 강조점을 결정한다는데서 성교육의 커다란 방향을 결정하

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받고 싶어하는 성교육 내용에는 흥미로운 남녀차이가 나타나, 남학생들은 이성교제와 이성간 성행위에 대한 교육을 가장 희망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임신과 피임, 성태도 및 가치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받고 싶어했다. 이러한 남녀차이는 이들이 갖고 있는 성고민의 부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남녀 모두 성적 변화에 대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 순위의 항목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뚜렷해 남학생들은 성충동이나 성교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임신이나 피임 및 낙태, 성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성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적 충동과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고민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성행동의 결과인 임신, 피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그 내용을 구성할 때 대상자들의 요구파악을 우선으로 함으로써 그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성별에 따라 갖고 있는 특별한 요구사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성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바른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지식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허와 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성에 관해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성별차이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정은경, 1992; 김영희, 1993; 이명화,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별문항에 대한 분석에서 다수의 남녀학생들은 특정 부분에 대해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 대중매체의 발달로 수많은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는 있으나 실제 청소년들이 지식의 많은 부분이 옳지 못한 지식임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성지식과 태도가 보통 성인기에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바른 성지식의 획득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기의 성고민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별 성지식의 분석결과를 볼 때, 남녀 모두에게 가장 오답이 많은 것은 '정자의 생존시기'와, '생리중 임신 여부'였고, 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성기 크기', '간강'에 관한 잘못된 지식으로 나타났다. '정자의 생존시기'와 '생리중 임신 여부'는 청소년들의 성관계 후 최대의 고민이 될 수 있는 '임신과 피임'과 관련된 지식으로 이것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고민(YMCA, 1998) 중에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성지식이 성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또한 남학생의 절반 이상이 '성기 크기가 여성의 성적 쾌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성기 크기에 잘못된 지식들을 성교육에서 특히 교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기 크기에 대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성기 크기와 관련된 신념들의 허와 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성적 만족과 관련된 최소한의 크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 또한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에 따르면, 차이가 있는 9개의 문항 중 6개에서 여학생들이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가 흔히 요즘의 청소년들, 특히 남학생들이 '성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평가하는 바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 남자고등학생이 자신들의 성지식 수준을 평가한 아래의 보고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전 한국 고등학생 남자들을. . . '안전핀 없는 수류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전핀은 성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몰라 언제 폭발하지 모르고 이쪽 저쪽에게 피해만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 역시 희생되어 갑니다. 음란물이 성교육인 우리들, 아설이 성교육 책이고 포르노는 영상자료, 아무 생각없이 하는 섹스는 실습으로. . .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2000년 제2회 10대 임신예방을 위한 연속토론회)

셋째,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성태도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양성평등적 태도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존에 받아들인 성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앞서 제시하였듯이 사춘기의 신체, 심리적 변화나 임신, 피임과 같은 비교적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많이 실시된 반면, 성태도나 가치관, 성역할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정도의 교육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 모두에게서 동일하였다. 그러나 성태도나 가치관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받고 싶은 성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목격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성행동이나 성문제가 사실적인 지식의 부족보다는 성가치관의 혼란과 잘못된 성태도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의 성을 금기시함과 동시에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사회 전반의 성가치관은 십대의 매매, 원조교제, 강간 등과 같은 현상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성태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양성평등적 성태도의 교육이 앞으로의 성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성태도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명화, 1998; 이정은, 1998, MBC청소년백서, 2000)과 유사한 방향을 보였다. 우선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남녀의 성에 대해 불평등한 태도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여자가 책임져야 한다'거나 '남자는 여자에게 거칠게 대하는 것이 성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여성이 애무를 허락한 경우 남성이 성폭행을 하더라도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또는 '결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에 대해 남학생들이 더 많이 동의하고 있어, 여성의 성에 비해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더 허용적이고 성적 결과에 대해 여성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들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남녀 학생들의 이러한 차이는 성지식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지식 문항 중 자칫 성폭

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간에 대한 문항에 대해 여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남학생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은 야한 옷을 입거나 예쁜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에 대해 잘못된 답을 적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강간을 거부하면서도 성적쾌감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의 남학생들이 옳다고 응답하여 강간에 대한 위험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제한된 문항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성태도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의 강화와 함께, 남녀의 성을 평등하게 인식하고 대접할 수 있는 성태도를 길러 주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개방성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사랑하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거나, 청소년기에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태도를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인사회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서부터 남녀간의 성태도와 성의식이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교육에서는 남녀 학생들 모두 상대의 평균적인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나아가 양성이 모두 존중받는 성태도를 성립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의 주체성이나 책임의식 고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성관계의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남녀 각각 13.5%, 8.1%(평균 10.8%)의 학생들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결과들(김영희, 1993; MBC청소년백서, 1991, 2000)과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첫 성관계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모두는 이성교제의 상대와 가장 많이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간단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

을 보여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계기에 대해 살펴 본 결과에서는 흥미로운 점들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성충동 때문이나' '상대가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여, 남학생들은 성충동, 호기심, 술이나 약물의 순서로 이유를 밝힌 반면, 여학생들은 상대가 원해서, 사랑하므로, 술이나 약물의 순서로 첫 성관계의 이유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첫 성관계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첫 성관계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모두는 이성교제의 상대와 가장 많이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첫 성관계의 상대로 가장 많은 경우는 이성교제의 상대였고, 다음으로는 놀라게도 '모르는 사람'이 첫 성관계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에 대한 남학생의 응답은 여학생의 두 배를 넘어 남학생들의 경우 모르는 사람 즉, 처음 만난 사람과의 즉흥적인 관계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남학생들은 상당부분 충동적인 이유와 주변분위기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인 개입이 없는 육체적인 접촉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 여성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 혹은 성교 후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여학생들에서는 '상대가 원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수동적인 요인이 첫 성관계의 우선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랑하므로'와 같은 정서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이유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로 하여금 육체적 원인을 넘어선 정신적 교류로서의 성관계를 인식케함과 동시에, 여학생들로 하여금 성행동에 대한 보다 주체적인 개입과 책임있는 선택을 강조하는 교육이 앞으로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성관계의 이유에 대한 남녀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직시하게 하여 이성교제시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성에 관한 청소년들의 보다 확고한 주체성 확립의 중요성은 이들이 보이고 있는 임신 및 피임 관련 행

동들에서도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임신의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 6.5%의 학생들이 자신 혹은 자신으로 인해 상대가 임신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박현이, 2000)와 유사하게 남학생이 상대의 임신경험을 보고한 비율보다는 여학생 스스로 임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5배 가량) 많았다. 이들의 임신의 횟수도 놀랄 정도여서 1번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나 남녀 모두 4번 이상의 경험도 적지 않은 수를 보였다. 여기서 남녀간의 차이는 박현이(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실제적인 비율의 반영과 함께, 상대방의 임신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남학생들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 가미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짧은 교제기간을 감안할 때, 자신과의 교제기간 동안 임신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임신 사실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여학생의 대다수가 이성교제의 상대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통해 임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거를 갖는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가?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다수의 학생들이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은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녀 학생 모두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사러가는 것이 부끄러워서'나 '귀찮아서' 등의 이유를 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남녀 청소년들 모두 성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부분 무책임한 대응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에서는 이성과의 관계가 그를 통한 쾌락의 추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까지도 감수하고 책임져야 하는 행위임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0대 미혼모나 미혼부 문제,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 등이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은 많았으나, 실태조사가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특정지역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실태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녀, 인문실업계, 지역, 학년을 고려하여 무선표집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얻는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성교육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려 했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성행동의 다양한 실태조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성태도나 가치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성과 관련된 자신의 태도와 행동실태를 어느 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는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더욱 신뢰로운 자료를 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삼, 이기중, 조원호(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교육논총*, 17(1), 159-321.
- 고애자(1990). 중학교 학생들의 이성친구에 대한 태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1993).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가족계획협회(1996). 인공유산 실태에 관한 연구
- 문화방송(1991). 1991MBC 청소년백서.
- 문화방송(2000). 2000 MBC 청소년백서.
- 박은주(1993). 청소년의 성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이(2000). 10대 남자 청소년의 성행태에 대한 조사. 2000년 제2회 10대 임신예방을 위한 연속 토론회. "10대 임신과 남자의 무책임, 무엇이 문제인가?"
- 성문화연구소(1997). 청소년 성교육.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성문화연구소*.
- 이계화(1988). 중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화(1999). 한국 청소년 성상담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천년, 새로운 청소년 성상담의 과제와 활동방향. 서울 YMCA 청소년성교육상담실 개설 15주년 기념세미나*.
- 이문희(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1998). 자아성, 성태도, 충동성과 성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1992).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규(1990). 청소년의 성문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uggestions for the Adolescence Sex Education on the bases of Their Need and Necessity

Hyewon Kim · Haegyong Lee

Hoseo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suggest the appropriat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adolescence sexual education by exploring adolescence'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In a sample survey of 2048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ce's need for sexual education, conflicts, knowledge, behaviors were asked. Results showed that the contents of sexual education students studied in the past as well as the need for the future educations differed by gender. Male and female students also had different contents of sexual conflicts, knowledge, and attitudes. As resemble, experiences of sexual behaviors and reasons of sexual behaviors as well as of not using contraceptive devices were clearly different by gender. These results showed that in executing the adolescence sexual education, contents and directions of education were prepared carefully depending of gender of students.